



제58기 공군사관생도 1차 선발시험 문제지

제 1 교시(60분)

언 어 영 역

공 통

성명

수험번호

B 형

1

- 먼저 문제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하게 기입하십시오.
- 답안지에 성명, 수험 번호, 문형을 표기하십시오.
- 문제는 2점 20문항, 3점 20문항 총 40문항입니다.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조하십시오)

1. 일상 생활의 소재를 활용하여 글쓰기를 한 것이다. <보기>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것은? (2점)

<보 기>

- ㄱ.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할 것.
- ㄴ. 대상의 부정적인 면을 부각시킬 것.
- ㄷ. 점층의 기법으로 내용을 전개할 것.

- ① 사람들은 나를 바보상자라고 부른다. 나는 사람들에게 흥미와 오락거리를 주고, 새로운 소식은 물론 교양까지 주는데 나를 나쁘다고만 하니 정말 억울하다.
- ② 담배는 중독성이 심한 마약이다. 그래서 한번 담배를 피우기 시작한 사람은 쉽게 끊기 어렵다. 왜냐하면 흡연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니코틴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 ③ 나는 사람들에게 지식이라는 선물을 가져다준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나를 많이 찾아 비록 바쁜 생활을 해도 보람이 있었는데, 요즘 사람들은 영상 매체에 길들여져 나를 찾지 않는다.
- ④ 불은 인간의 문명을 발전시킨 원동력 중의 하나이다. 불은 잘 사용하면 한없이 많은 이익을 가져다주지만, 자칫 잘못 사용하게 되면 엄청난 재앙을 가져오기에 조심해서 사용해야 한다.
- ⑤ 컴퓨터 게임은 마법의 힘을 가진 괴물이다. 컴퓨터 게임에 길들여진 사람은 일을 할 때도, 심지어 식사를 하면서도 게임을 생각하게 되고, 중독이 심해지면 잠을 자면서까지 게임하는 꿈을 꾸게 된다.

2. <보기>에 나타난 국어의 경어법을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 ㉠ 영희야, 할머니 잘 모시고 가야 한다.
- ㉡ 선생님, 그 일은 제가 하겠습니다.
- ㉢ 할머니께서는 진지를 맛있게 드셨다.
- ㉣ 자네는 아직도 그 일을 하고 있나?
- ㉤ 할아버지, 아버지가 방금 퇴근했습니다.

- ① ㉠ : 행위의 주체와 객체를 동시에 높이고자 하는 의도가 드러나 있다.
- ② ㉡ : 청자를 높이고 자신을 낮추고자 하는 표현이 드러나 있다.
- ③ ㉢ : 행위의 주체가 높임의 대상이기에 높임말이 사용되었다.
- ④ ㉣ : 청자가 화자보다 아랫사람일 때 사용하는 표현이 있다.
- ⑤ ㉤ : 청자가 행동의 주체보다 높아서 주체를 높이지 못했다.

3. <보기>는 ‘현대인이 추구하는 왜곡된 아름다움’이라는 제목으로 교지에 실을 기사의 일부이다. 글을 수정, 보완하기 위한 제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현대인은 ‘아름다움’을 추구한다. 개인들은 대중매체를 통해 주어지는 미적 기준을 자신의 모습에 적용한다. 대중매체에 등장하는 연예인들처럼 되기 위해 무리하게 ㉠ 다이어트를 하거나 트렌드에 맞는 옷을 입는 경우가 바로 그 예이다. ㉡ TV, 라디오에는 무리한 다이어트를 하다가 목숨을 잃은 사건이 자주 보도되고 있다. 이 사람들은 대중이 아름답다고 인정하는 특정인의 외모와 자신의 외모를 비교하여 그 비슷함의 여부에 따라 자신의 아름다움을 판단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름다움은 ‘주체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이 된다. ㉢ 그런데도 그들은 이러한 노력들이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는 ㉣ 행동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은 자신에 대한 미적 판단이 외부적 기준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 개성의 추구인 동시에 개성의 포기가 되는 셈이다.

- ① ㉠ : 불필요한 외국어 표현이므로 ‘음식 조절을 하거나 유행에 맞는’과 같은 우리말 표현으로 바꾸어야겠어.
 ② ㉡ : 글의 전개상 불필요한 내용이므로 삭제하는 것이 적절할 거야.
 ③ ㉢ : 두 문장을 자연스럽게 연결하기 위해서는 ‘그래서’로 교체하는 것이 좋겠어.
 ④ ㉣ : 문장 성분이 서로 호응되지 않으므로 ‘행동이라고 생각한다.’로 고쳐서 써야 해.
 ⑤ ㉤ : 앞의 진술된 내용으로 보아 ‘개성의 추구가 아니라 개성의 포기가 되는 셈이다.’로 수정하는 것이 좋겠군.
4.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이라는 주제로 글을 쓰기 위해 개요를 작성한 후, 각 항목에서 다음 내용을 메모한 것이다. 논지 전개상 적절하지 않은 것은? (2점)

제 목 :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

I. 서론 : 원자재 가격 상승의 현황

국제 시장에서 원자재 가격이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는 상황을 언급함. ……㉠

II. 본론

1.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문제점

가. 경제적 측면 : 상품의 가격 상승으로 수출 둔화

수출 상품의 경쟁력 상실, 외국 바이어 방문의 감소 ……㉡

나. 사회적 측면 : 내수 부진으로 소비 생활 위축

경기 침체로 실업자 증가, 소득 감소로 가계 소비의 위축 ……㉢

2.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대책

가. 경제적 측면 :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

품값이 뛰어난 신상품 개발, 새로운 시장 개척으로 판로 확보 ……㉣

나. 사회적 측면 : 소비 활성화 정책 시행

수입 원자재 상품에 대한 과세 강화, 사치성 소비재 유통 억제 ……㉤

III. 결론 : 경쟁력 확보와 소비 활성화 방안 모색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고 소비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시행함.

① ㉠

② ㉡

③ ㉢

④ ㉣

⑤ ㉤

[5~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사진이 외형상 현실을 있는 그대로 재현한 것이라는 특성을 가지면서도 현실을 넘어 예술로 전이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사진가의 주관적 변용이라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일상적 사물은 창조적 영상으로 다시 태어난다. 즉,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의 감관을 자극하는 것이다. 사진은 애초부터 ‘찾는’ 작업이다. 사진가는 눈이 아니라 렌즈를 통해 보는 현실을 찍는다. 그래서 ‘보는’이라는 말은 눈으로 피사체의 존재 또는 그것의 형태적 특징을 안다는 뜻 외에 ㉠ 는 뜻으로 확장된다.

사진을 일컬어 ‘발견의 예술’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여기에 근거한다. 어떤 사람들은 사진은 발로 찍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주장은 발견의 예술이라는 의미를 표면적으로 이해한 것에 불과하다. 저널리스트라고 해도 흥미 있는 혹은 독점적인 사건이나 대상을 발견하여 이를 사진에 담아내는 작업만으로는 예술성을 획득할 수가 없다. 그 대상과 사건에 나타난 이면의 의미를 찾아낼 때, 또는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때 비로소 ‘발견’이라는 말의 의미가 살아나는 것이다. 따라서 그 발견은 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사진은 사진가에 의해 완전히 통제되지 않는다. 현실 그대로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진의 영상 자체가 사진가가 부여한 의미를 가로막는 것이다. 그래서 사진 감상자는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영상을 해석할 여지를 갖게 된다. 사물의 모습을 비교적 사실적으로 그린 그림의 경우에도 비슷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그렇지만 그림에 그려진 사물의 경우 그것은 화가의 붓에 의해 변형된 사물이라는 관념이 강하게 작용하여 감상자들은 자신의 자의적 해석에 앞서 작가의 의도를 먼저 찾으려는 경향이 훨씬 강하다.

그래서 사진에서는 영상의 해석을 통제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게 된다. 언어적 표현으로 사진을 보완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사진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없는 이들은 사진이 언어로 보완된다는 것을 부정하려 한다. 이것을 능력 없는 사진가의 행태로, 일종의 수치라고도 생각한다. 그러나 언어를 통해 발견의 의미가 명확히 드러난다면 그것은 사진의 예술성을 더욱 높여주는 긍정적 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사진가들은 사진을 여러 장 함께 제시함으로써 이러한 효과를 거두기도 한다. 어떤 사람의 어렸을 때, 학생 때, 청년일 때, 장년일 때, 노년일 때의 모습을 찍어 순차적으로 보여주면 감상자들은 그 개인의, 일생에 걸친 모습의 변화라는 사진의 주제 의식을 쉽게 찾아낼 수 있다. 함께 제시된 사진들이 관계를 만들어 내면서 그 안에 사진가가 전달하려는 의미의 맥락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사진가의 의도와 무관한 외적 정보들이 부각되어 그 의도의 전달을 방해한다면 그 사진은 서툰 사진에 불과하다. 사진은 사실적 정보의 창고가 아니다. 사진 감상자들은 단순한 사물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진에 부여된 의미를 이해하고 사진가와 교감하기 위해 사진을 본다. 따라서 사진가는 자신의 의도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 없이 ‘결작’ 사진을 남긴다는 것은 그저 요원한 이야기일 뿐이다.

5.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2점)

- ① 감상자들은 사진을 통해 사진가와 교감하게 된다.
- ② 다양한 의미가 부여된 사진일수록 결작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 ③ 독점적 사건을 담은 사진이라고 해서 예술성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 ④ 사진 영상의 현실성으로 인해 감상자의 주관적 해석이 유발되기도 한다.
- ⑤ 사진가의 의도와 관련이 없는 외적 정보가 의도의 전달을 방해하기도 한다.

6. 위 글의 필자가 사용한 글쓰기 전략으로 볼 수 없는 것은? (3점)

- ①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 ② 상반된 견해를 반박함으로써 자신의 견해를 뒷받침하고 있다.
- ③ 다른 대상과의 비교와 대조를 통해 대상의 속성을 설명하고 있다.
- ④ 대상의 특성과 관련된 어휘들에 담긴 본질적 의미들을 규정하고 있다.
- ⑤ 대상의 개념에 대한 여러 견해를 종합하여 새로운 속성을 도출하고 있다.

7. ㉠에 들어갈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 ① 피사체에 부여된 보편적 개념들을 분석하게 된다
- ② 피사체의 물리적인 구성 요소들을 파악하게 된다
- ③ 피사체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견해들도 수용하게 된다
- ④ 피사체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까지도 구체적으로 이해하게 된다
- ⑤ 피사체의 겉모습에 드러나지 않은 새로운 의미를 인식하게 된다

8. 위 글을 읽고 <보기>의 사진에 대해 학생들이 서로 견해를 나누고 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제목 : 나무

- ① 규하 : 사람의 얼굴 모양을 한 실제의 나무를 피사체로 했다는 점에서 현실의 재현이라고 할 수 있어.
- ② 준하 : 만약 이 나무의 모습을 그림으로 제시했다면 사진으로 제시했을 때보다 감상자들의 자의적인 해석은 줄어들게 될 거야.
- ③ 예석 : 저런 나무를 찾기 위해서 사진가는 곳곳을 돌아다녀야 하기 때문에 사진을 찍는 것은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보다 창조적인 작업이라고 말할 수 있어.
- ④ 재원 : 제목에 “나무를 통해 현실을 살아가는 인간의 얼굴을 보여 주고 싶었다.”와 같은 표현을 덧붙인다면 사진에 대한 통제가 강화될 거야.
- ⑤ 진욱 : 재원이 의견처럼 표현을 덧붙여 놓았는데도 대부분의 감상자들이 “왼쪽 아래 있는 잎은 어떤 식물의 잎일까?”라는 질문을 주로 한다면 이 사진은 그야말로 서툰 사진이 되는 거겠지.

[9~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지난 여름에 시골서 교장 노릇하는 G군이 오래간만에 찾아왔다.

“자네 웬일인가?” / “나? 감투하나 쓰러 왔네.” / “정말인가?” / “그럼 거짓말로 아나?”

정계에 매일같이 감투 씌미 벌어지고, 장안 안 여관마다 감투 사러온 친구들이 뒷간에 구더기 끓듯 한다는 소문이 신문마다 벽적거리는데, 난생 처음으로 교장 노릇도 해보니 그놈의 것 아무것도 아닐래, 나라고 감투 못 쓰란 법 있을라고, 예라,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다. 그는 이러한 생각 끝에 전후(前後) 불고(不顧)하고 서울로 튀어 올라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막상 올라와서 동정을 살펴보자 한즉, “그 감투란 것 좀체 쓰기 어렵데. 10만원은 있어야 겨우 술잔 값이나 될는지 모르겠데.” 하나 이 기회에 꼭 감투는 쓰고 내려가야겠는데, “자네는 광면한 친구이니까 혹 그럴듯한 굵*이 없겠느냐.”라는 것이다.

나 는 웃을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현상은 G 한 사람에 한한 것이 아니요, 이렇기 때문에 세상은 썩을 대로 썩어가는 것이지만, 우선 아쉬운 대로 나는 G에게만이라도 충고할 의무를 느끼고 이렇게 권고해 돌려보냈다.

“실례일지 모르나, 자네는 세상을 좀더 알아야 하네. 껌데기 세상만 보지 말고 속껌질을 벗기고 그 속에 있는 세상을 보아야 하네. 감투란 원래 값이 비싼 것이 아닐세. 아니라기보다 한 푼어치 값도 없는 것

이요, 또 값이 있을 수도 없네. 감투가 돈으로 환산되는 날 세상은 망하는 날일세. 왜 그러냐 하면, 감투를 밑천을 들여서 사는 날 벌써 감투 밑천을 뽑아야 할 생각이 안 나겠나? 가령 책 장수가 강희자전 한 권을 50원이구 100원이구 주구 샀다 치세. 학자 아닌 책장수가 자기 신주 덩어리가 아닐 바에야 그 책을 가보로 모셔들 리 없고, 팔게 될 경우에는 본전 안 받고 팔겠나? 5백 원이구 6백 원이구 흠뻑 이(利)를 남겨야 팔 것 아닌가. 이를테면 자네는 책장수요, 감투는 강희자전이란 말일세.”

꽤 모욕적인 언사로 이렇게 말했는데도 G는 껄껄 웃기만 했고, 그가 돌아가면서 종시 해결을 못 지은 것 같은 눈치로 가고 말았지만, 그를 돌려보내놓고 나는 나대로 괜히 웃음이 터져 올라서 못 견디었다.

- 김용준, <강희자전과 감투>

(나) 혹은 부유하다 하며, 혹은 빈곤하다 말하나 대체 부유는 어디서 시작되는 것이며 빈곤은 어디서 시작되는 것이냐? 사람이 부자이기 위해서는 대체 얼마나 많이 가져야 되고, 사람이 가난하기 위해서는 대체 얼마나 적게 가져야 되느냐? 그러나 물론 이것을 아는 이는 없다.

보라! 이 세상에는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가난하다 생각하며 사실에 있어 또 이 느낌을 항상 지니고 다니는 도배(徒輩)*는 허다하지 않은가? 그들은 어느 날에 이르러도 자족함을 알지 못하고, 전연히 필요치 않은 많은 것을 요망한다. 말하자면 위에는 위가 있다고 할까, 도달할 수 없는 상층만을 애써 쳐다보곤 아직도 자기에게 없는 너무나 많은 것을 헤아리는 것이다. 포만함을 알지 못하고 충분하다 하는 아름다운 말을 이미 잊은 바 그러한 도배를 본 사람은 도와줄 도리가 없다.

그런데 또 보라! 이 세상에는 극도로 어려운 처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넉넉하다 생각하며 사실에 있어 또 이 느낌을 항상 지니고 다니는 사람은 허다하지 않은가? 이 사람들에게겐 명색이 재산이라 할 만한 것이 없음은 물론이요, 대개는 손으로 벌어서 입으로 먹는 생활이 허락되어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들은 정말로 필요한 것조차 필요하다고 여기지 않고, 말하자면 밑에는 밑이 있으니까 밑만 보고 또 이 외에도 더욱 가난할 수 있을 모든 경우를 생각하고 그리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절박된 곤궁 속에 주리고 있는가를 생각한다. 이리하여 이 위안(慰安)의 명류(名流)*들은 마치 그들이 그들의 힘과 사랑을 어딘지 다른 곳에다 두는 듯한 느낌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원래가 빈부의 객관적 표준은 있을 수 없으므로 빈궁의 문제를 쉽사리 규정하여 버릴 수는 없다. 문제는 오직 조그만 주머니가 곧 채워질 수 있음에 대하여 구명난 대낭(大囊)*이 결코 차지 않는 물리적 이유에만 있을 따름이다. 그리하여 결국은 빈부의 최후의 결정자는 그 사람 자신일 뿐이요, 주위의 제삼자가 아니다. 그러므로 또한 사람이 참된 부유를 자손을 위하여 남기려거든 드디어 한(限)이 있는 물질보다는 밑을 보는 재조(才操)와 결핍에 사는 기술을 전함에 지남이 없을 것이다. 자족(自足)의 취미와 자기의 역량을 어딘지 다른 곳에다 전치(轉置)할 수 있는 정신적 재능이야말로 사람을 부자이게 하는 바 2대 요소이다.

- 김진섭, <청빈예찬>

* 굵 : 한쪽으로 트여 나가는 방향이나 길 * 도배(徒輩) : 함께 어울리는 무리

* 명류(名流) : 세상에 널리 알려진 사람들 * 대낭(大囊) : 큰 주머니

9. <보기>의 ㉠~㉣ 중, (가)와 (나)의 서술자와 관련된 적절한 진술로만 묶인 것은? (3점)

<보 기>

- (가) - 비유적 표현을 통해 대화의 상대방이 가진 삶의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 ... ㉠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독자에게 교훈을 전달하고 있다. ... ㉡
 (나) - 자신에 대한 반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깨달음을 도출하고 있다. ... ㉢
 전달하려는 의도와 반대되는 표현을 통해 주제를 강화하고 있다. ... ㉣
 설의법을 사용하여 현실의 세태를 드러내고 있다. ...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

※ <보기>는 (가)와 (나)의 화자가 만나 대화를 나누는 상황을 가정한 것이다. 잘 읽고 10번과 11번 두 물음에 답하시오.

_____ <보 기> _____

(가)의 화자 : 요즘 세상에 현재의 자기 지위보다 더 높은 지위를 얻고자 애쓰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

(나)의 화자 : 아래를 보려하지 않고 위만 바라보며 살아가려는 풍조가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가)의 화자 :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지위를 얻기 위해서 ‘돈’을 사용하려 한다는 것이지요. 이게 세상이 부패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까요? -----㉢

(나)의 화자 :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높은 지위를 얻는 사람들은 결국 허망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허망감을 다시 돈으로 채우려 하겠지요. -----㉣

(가)의 화자 : 돈으로 지위를 얻었으니 그 지위를 가지고 다시 돈을 벌어들이려고 할 것은 뻔합니다. 부패의 악순환이 이루어지는 셈입니다. -----㉤

(나)의 화자 :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자신의 처지에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이미 우리 조상들이 추구했던 삶의 모습과도 일치됩니다. 이 노래를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요즘 사람들에게 이 노래를 들려주고 싶습니다.

10. <보기>의 ㉠~㉤ 중, 대화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 ② ㉡ ③ ㉢ ④ ㉣ ⑤ ㉤

11. <보기>의 밑줄 친 ‘이 노래’에 해당하는 작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 ① 검음면 희다흐고 희면 검다흐네 / 검거나 희거나 올타흐리 전혀 업다
츄라리 귀 막고 눈 감아 듯도 보도 말리라
- ② 늪이 해홀지라도 나는 아니 겨로리라 / 춤으면 덕이오 겨로면 곱으리니
굽으미 제게 잇거니 상대홀 줄이 이시라
- ③ 므음아 너는 어이 밍양에 저멋는다 / 내 늘글 적이며 넌들 아니 늘글소나
아마도 너 좇너 돈니다가 늪 우일가 흐노라
- ④ 태산(泰山)이 높다흐되 하날아리 피히로다 / 오르고 쏘 오르면 못 오를 리 업건마는
사름이 제 아니 오르고 뵈홀 높다 흐더라
- ⑤ 밍암이 뵈다 울고 쓰르람이 쓰다우니 / 산채(山菜)를 밍다는가 박주(薄酒)를 쓰다는가
우리는 초야에 못쳐시니 밍고 쓴 줄 몰너라

12. [나] 와 [G]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 ① ‘나’의 웃음이 ‘G’의 어이가 없는 말과 행동 때문에 나온 것이라면, ‘G’의 웃음은 무안한 상황에 대응할 수 없어 마지못하여 나온 것이라 할 수 있다.
- ② ‘나’의 웃음에는 ‘G’의 처지를 이해하는 연민의 정서가 담겨 있고, ‘G’의 웃음에는 ‘나’의 말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수용의 태도가 드러나 있다.
- ③ ‘나’는 ‘G’의 행동이 재미가 있어 웃었고, ‘G’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숨기기 위해서 웃었다고 할 수 있다.
- ④ ‘나’는 ‘G’에 대한 친근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G’는 ‘나’를 무시하려는 의도에서 웃음으로 답했다.
- ⑤ ‘나’와 ‘G’의 웃음 모두 상대방을 경멸하는 심리를 담고 있는 비웃음이라고 할 수 있다.

[13~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전략 줄거리 : 형사인 키 큰 사내와 범인인 역구가 동행이 되어 눈 덮인 산길을 가며 춘천에서 벌어진 살인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역구는 과거 6·25의 혼란 속에서 친척에 이용당해 득수를 살해했고, 그 보복으로 득수의 동생 득철이가 역구의 아버지를 죽였다. 그 후 10여 년이 지난 어제 역구는 득철이를 만났으나 숲자리 끝에 그를 살해하게 된다. 그리고 오늘 고향을 찾아가는 중이다.

㉠ 큰길에 이르고서부터 그들은 서로 나란히 서서 걸었다. 두 사내의 발이 터벌터벌 발목까지 빠지는 눈길 위에 점을 찍어 나가고 있었다. 먼저보다 바람기가 스러지면서 눈발은 이제 조용한 흩날림으로 변하고 있었다. 옆 산 소나무 위에 얹혔던 눈무더기가 쵸르르 쏟아져 내렸다. 마치 자기 무게를 그렇게 ㉡ 나약한 소나무 가지 위에선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다는 듯이……. 그때 좀 먼 곳에서 푹 우지끈 소나무가지 부러져 내리는 소리가 들려 왔다. 그러자 이때 역구가 느닷없이 키 큰 사내의 앞을 막아서며,

“선생, 난 득수 동생놈을, 그 김득철일 어제 죽였던 말이오. 이렇게 온통 눈이 내리는데 그까짓 걸 숨겨 뭘 하겠소. 선생은 아주 추악한, 사람을 몇씩이나 죽인 무서운 놈과 함께 서 있는 거유. 자, 날 어떻게 하겠수?”

그러면서 한 걸음 큰 키의 사내 앞으로 다가섰다. 큰 키의 사내는 후딱 몇 걸음 물러서며 오버 주머니에 오른손을 쥘쥘 넣었다. 그의 시선은 역구가 양복 윗주머니의 불룩한 것을 움켜쥐고 있는 것에 머물러 있었다.

“아까두 말했지만, 그 술집에서 난 놈에게 이주걱됐죠. ㉢ 그래 자넌 분명 우리 아버질 잡았겠다? 그래 별초를 매년 해 왔다구? 아 고마워, 고마워……”하고 말입낸다. 헌데 그 득철일 난 그날 밤 죽이고야 만 것입니다. 글썄, 나두 그걸 모르겠수다. 왜 내가 그 득철일 죽였는지.”

여직 들어보지 못한 맥빠진, 그렇게 풀이 죽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나 큰 키의 사내는 묵묵히 역구의 얼굴을 뜯어보고만 있었다. 이윽고 역구가 큰 키의 사내 앞에서 몸을 돌리며 저쪽 산등성이를 가리켜 보였다.

“바루 저 산에 ㉣ 가친 산소가 있답니다. 우리 조부님 산소 옆이라는군요. 난 지금 거길 가는 겁니다. 가서 우선 무덤의 눈을 쳐 드려야죠. 그리구 술을 한 잔 올릴랍니다. 술을 올리면서 가친의 음성을 들을 겁니다. 올해두 눈이 펑 내렸구나. 눈 온 짐작으로 봐선 내년두 분명 풍년이겠단만, 하실 겁니다. 그리고 꼭 한숨을 몰아쉬시겠죠. 그 한숨 소릴 들으면서 가친 옆에 누워야죠. 이제 가친을 혼자 버려두고 달아나진 않을 겁니다.”

그는 산으로 향한 생눈길을 몇 걸음 건다가 다시 이쪽을 향해,

“참, 바루 저기 보이는 저 모퉁일 돌아감 거기가 바루 와야됩니다. 가서서 우선 구장네 집을 찾아 몸을 녹이시우. 뜨끈뜨끈한 아랫목에 꼭 몸을 녹이셔. 자, 그럼 난.”

산을 향해 생눈길을 걸어가는 그의 언 바짓가랑이가 서걱서걱 요란한 소리를 냈다. 어깨를 잔뜩 구부리고 흡사 한 마리 흰 곰처럼 산을 향해 걷는 역구의 ㉤ 을씨년스럽고 초라한 뒷모습에 눈을 주고 선 큰 키의 사내는 한참이나 그렇게 묵묵히 섰다가 문득 큰길 아래로 내려서서 역구 쪽을 따라가며,

“노형, 잠깐!”

말소리 속에 강인한 무엇인가 깔려 있는 듯싶었다. 언 바짓가랑이를 데걱거리며 걸어가던 역구가 주춤 멈춰서 이쪽으로 등을 돌렸다. 큰 키의 사내가 성큼성큼 다가왔다. 오버 안주머니에 손을 넣어 무엇인가 움켜쥔 그런 자세였다.

역구가 짐짓 몸을 추스르며 자기에게로 다가서는 큰 키의 사내 거동을 바라보고만 있었다. 역구 앞에 멈춰 선 큰 키의 사내가 할 말을 잊은 듯 멍청하니 고개를 위로 향했다. 고개를 약간 젓히고 입을 헤- 벌린 채. 그의 이러한 생각하는 표정 위에 눈이 내려앉고 있었다.

- 그날 밤 난 생물 선생네 담을 빙빙 돌고만 있었지. 내 키보다두 낮은 담이었어. 난 거꾸 담을 돌고만 있었지. 만약 내가 담을 넘어 들어간다면, 그러나 난 담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담이란 남이 들어오지 말라고 만들어 놓은 거니까. 들어오지 말라는 걸 들어가면 그건 나쁜 것이니까, 그건 도둑놈이지. 난 나쁜 놈이 되는 건 싫었으니까. <중략> 결국, 난 새끼 토끼 구할 생각을 거두고 담만 돌아돌아오고 말았지.

“아니 선생, 남을 불러 놓고 왜 그렇게 하늘만 쳐다보슈?” / 억구가 말했다.

- 나쁜 놈이 되기가 싫었던 거야. 담을 넘는다는 건…….

큰 키의 사내가 한 걸음 물러섰다. 생각하는 표정을 거두지 못한 채. 산 속 소나무 위에서 다시 눈무더기가 쉼쉼 쏟아져 내렸다. 마치 그 연약한 나뭇가지 위에선, 그리고 거꾸 내려 쌓이고 있는 눈의 무게를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다는 듯. 억구가 다시 다그쳤다.

“선생, 발이 시립니다. 내가 여기 얼어붙어야 좋겠소? 원 별 양반도…… 자, 그럼…….”

억구가 다시 몸을 돌려 산을 향했다. 그가 몸을 돌리는 순간 그의 강퍽한 양복 윗주머니에 빠져죽하니
㉔ 2홉들이 소주병 노란 덮개가 드러나 보였다.

순간 망설이던 큰 키의 사내 얼굴에 어떤 결의의 빛이 스쳤다.

“아, 노형, 잠깐?”

억구가 바짓가랑이를 데적거리며 다시 몸을 돌렸다. 순간 큰 키의 사내는 오른쪽 오버 주머니에서 서서히 손을 뺐다. 그리고 무엇인가 불쑥 억구 앞으로 내밀었다.

- 나는 담만 돌았지. 무서웠던 거야.

“이걸 나한테 주시는 겁니까?” / 억구가 물었다.

“예, 드리는 겁니다. 아까 두 개비를 피웠으니까 꼭 열여덟 개비가 남아 있을 겁니다. 눈이 이렇게 많이 왔으니 올해 담배도 풍년이겠죠. 그러나 제가 지금 드린 ㉕ 담배는 하루에 꼭 한 개씩만 피우셔야 합니다.”

큰 키의 사내 얼굴에 얇은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담배 한 갑을 받아 든 채 명칭히 서 있는 억구에게서 몸을 돌려 마치 눈에 홀린 사람처럼 비척비척 큰길로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잔기침을 몇 번 콧콧 하면서 걸어가는 그의 등 뒤로 마치 울음 같은 억구의 외침이 따랐다.

“하루에 꼭 한 개씩 피우라구요? 꼭, 한 개씩, 피, 우, 라, 구요?”

그러면서 그는 느닷없이 웃음을 터뜨리는 것이었다. ㅎㅎㅎㅎㅎㅎ.

눈 덮인 산 속, 아직 눈이 조용히 비껴 내리고 있는 밤이었다.

- 전상국, <동행>

13. ‘키 큰 사내’의 과거와 현재 상황을 다음과 같이 대응시킬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2점)

	요소	과거	현재
①	처한 상황	새끼 토끼를 살려주려 감	억구를 잡으려고 동행함
②	갈등의 핵심	담을 넘느냐 마느냐	억구를 잡느냐 풀어주느냐
③	갈등의 표출 양상	담을 빙빙 돌기만 함	억구의 가슴속 불룩한 것을 주시함
④	심적 결정	담을 넘지 않기로 함	억구를 풀어주기로 함
⑤	심리적 태도	후회하고 있음	편안하게 여김

14. 위 글을 읽고 감상을 심화·발전시킨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산 속의 밤길을 걸어가는 과정에서 두 사람의 심리가 변화하는 것을 엿볼 수 있어, 작품에서 여로(旅路)가 인물의 심리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
- ② 이 작품은 이데올로기로 인한 민족사의 비극을 반영하고 있어. 키 큰 사내의 결정에는 우리 민족의 아픈 상처를 보듬고자 하는 작가의 의도가 담겨 있는 거야.
- ③ 한 사람은 계속 다가가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은 일정한 거리를 두려 하고 있어. 인간 간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한지를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어.
- ④ 세상을 하얗게 덮으며 내리는 눈은 두 사람이 길을 가는 데에 단순히 고난을 주는 것만이 아니라, 억구의 잘못을 덮어주는 관용의 정신을 담아내고 있는 것 같아.
- ⑤ 억구는 비록 거둬 살인을 저질렀지만 그래도 인간다운 면모를 지니고 있어. 작품 속에서 억구의 삶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키 큰 사내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거야.

15. <보기>의 대화에서 ㉠의 어조와 가장 유사한 것은? (2점)

_____ <보 기> _____

- ① “애들아, 기말시험도 끝났는데 이번 여름방학에 우리 학급 차원에서 봉사활동을 해 보는 것이 어떨겠니? 장소는 내가 알아볼게.”
- ② “그래, 시험은 못 봤지만 무엇인가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도 괜찮을 거야. 가뜰이나 스트레스도 쌓였는데 좋은 일 하면 풀리지 않을까 싶어.”
- ③ “봉사활동? 좋지. 하지만 시험도 못 봐 놓고 무슨 남 걱정이나. 자기 할 일도 못하는 애들이 무슨 얼어 죽을 봉사활동이냐 말야.”
- ④ “맞아, 가뜰이나 시험도 못 봐서 기분도 우울한데 몸까지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 난 방학 때 해야 할 공부도 많단 말이야.”
- ⑤ “너희들 정말 이기적이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너희들 같다면 봉사활동 할 사람이 어디 있겠니? 하고 싶지 않으면 너희들은 빠져!”

16. <보기>에서 ㉠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골라 묶은 것은? (3점)

_____ <보 기> _____

- ㉠. 상대 인물의 의중을 저울질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 ㉡. 속마음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다.
- ㉢. 상대 인물에게 불편한 심기를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 인물 간 긴장 관계가 완전히 해소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17. ㉠~㉣ 중, 인물에게 심리 전환의 계기를 제공하는 것은? (2점)

- ① ㉠ ② ㉡ ③ ㉢ ④ ㉣ ⑤ ㉣

[18~2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생명체의 환경은 대부분 다른 생명체들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함께 살아가는 모든 것은 그 어떤 식으로든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조율되어 있다. 이 스펙트럼의 한쪽 끝에는 공생 형태, 즉 양자의 이익을 위한 긴밀한 형태가 있다. 그리고 다른 한쪽 끝에는 약육강식이라는 덜 유쾌한 관계가 있는데, 이것은 생존을 위한 투쟁이라는 형태를 취한다.

자연은 협조뿐만 아니라 경쟁을 통해서도 고루 관계를 맺으며 짜여 있다. 그래서 진화는 ㉠ ‘공동 진화’이기도 하다. 한 종이 어떤 속성의 변화를 일으키면 그 변화는 다른 종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영양이 달리기를 잘하게 되면, 사자도 더 빨라져야 하거나 새로 사냥할 ㉡ 먹잇감을 다른 환경에서 찾아야 하는 식이다. 바로 이것이 자연의 ‘군비 경쟁’이다. 이것은 ㉢ 예삿일 같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로 인해 창조주에 대한 신앙심을 순식간에 갖게 되기도 한다. 관계되는 모든 생명체가 지극히 경이로운 방식으로 서로 조화를 이루며 기적 같은 앙상블을 자주 드러내기 때문이다.

생물학자 도킨스는 벌레잡이통꽃을 통해 이를 설명하고 있다. 이 식충 식물은 긴 잎 끝에 꽃병처럼 생긴 멧진 통을 달고 있어 보는 이의 감탄을 자아내며, 통의 3분의 1 정도가 물로 채워져 있다. 도킨스는 일부러 만든 것과 같은 이런 형상을 ‘디자인노이드’라고 불렀다. 디자인노이드는 본질적으로 두 가지 원칙을 따른다. 첫 번째 원칙은 자연 어디서든 발견되는 효율성이다. 어떤 생물이든 생존을 위해 지나치게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면 원칙적으로 불리하다. 따라서 되도록 적은 재료를 가지고 꼭 필요한 만큼의 견고한 몸매를 만들어 낸다. 그 결과는 대개 극도로 기교적이며 금실 세공처럼 정교하다. 이것만 봐도 그 우아한 형태를 확인할 수 있다. 두 번째 원칙은 합목적성이다. ㉠ 벌레잡이통풀은 곤충을 유인하기 위해 향기를 내뿜고, 통의 입구 가장자리를 색무늬로 장식한다. 이 가장자리는 매끈하고 미끄러워서, 한번 들어온 곤충은 들어오자마자 급행열차를 타듯 섬모에 실려 눈 깜짝할 사이에 물 속으로 빠진다. 그러나 이 식물은 통 속에 익사한 파리만으로는 직접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다고 위와 장을 갖춘 소화 메커니즘을 개발하는 일은 식물에게는 별로 효율적이지 못한 사업이다. 그래서 벌레잡이통풀은 이 일을 대신 해줄 자와 제휴하겠다고 공고를 낸다. 그리하여 통의 물 속에 ㉡ 특정의 구더기와 그 밖의 여러 생물이 살게 된 것이다. 그것들은 파리를 먹어 치우고, 대신 식물이 필요로 하는 물질을 배설한다. 그 대가로 식물은 직접 물 속 생물들에게 산소를 배출해 물의 신선도를 유지한다.

합목적성 원칙은 자연에서 ㉢ 종류가 아주 다른 동식물들이 어째서 선호되는 형태를 동일하게 갖추게 되는지도 설명해 준다. 이것은 마치 어떤 초월자가 계획에 따라 형상화했다는 환상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외견상 비슷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돌고래뿐만 아니라 어룡과 펭귄에게서 확인되는 유전형이 그 좋은 예이다. 우리는 이처럼 자연 곳곳에서 효율성과 합목적성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런 형상들은 누가 빚어낸 것이 아니라 사실은 생물들이 환경에 적응한 결과이다.

18. 위 글을 읽고 추리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점)

- ① 자연의 생물들이 이런 조화가 경이로워서 많은 사람들은 자연을 창조주의 산물로 의심하기도 한다.
- ② 지렁이가 땅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살수록, 지렁이를 잡아먹는 두더쥐의 땅 파는 실력도 늘어날 것이다.
- ③ 모든 생물은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기에 생물 다양성의 파괴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 ④ 벌레잡이통풀은 처음부터 벌레를 잡아먹을 수 있는 뛰어난 구조를 지니고 있었기에 번식 능력이 강했을 것이다.
- ⑤ 피식자의 개체수가 줄어들었을 때, 포식자가 새로운 먹이에 적응하지 못한다면 포식자의 개체수도 감소할 것이다.

19. ㉠을 인간 사회에 적용하여 설명하고자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2등을 하던 철수가 1등으로 올라가자, 1등에서 밀려난 영수가 자극을 받아 공부에 더욱 매진하게 되었다.
- ② 중국이 저임금으로 시장을 점령해 나가기 시작하자, 우리나라는 전략을 바꾸어 고가 상품으로 이에 대응하고 있다.
- ③ 병원이 있는 건물에 약국이 들어서자 편리성 때문에 병원의 손님이 많아졌고, 덩달아 약국의 매출도 오르게 되었다.
- ④ 전자 제품 업계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A전자의 막강한 영향력으로 다른 업체들의 영향력은 갈수록 위축되고 있다.
- ⑤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며 아이를 맡기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탁아 시설의 수입이 늘었고 그에 따라 서비스도 좋아졌다.

20. <보기>는 사이시옷 규정을 보여주고 있다. ㉠과 ㉡을 설명할 때, 필요한 규정은? (3점)

<보 기>

1.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 (1)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것 ----- A
 - (2) 뒷말의 첫소리 ‘ㄴ, ㄹ’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는 것 ----- B
 - (3)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나는 것 ----- C
2. 순 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 (1)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것 ----- D
 - (2) 뒷말의 첫소리 ‘ㄴ, ㄹ’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는 것 ----- E
 - (3)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나는 것 ----- F

- ① A, B ② A, C ③ A, F ④ D, E ⑤ D, F

21.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 ① 천적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이다. ② 먹잇감을 쉽게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 ③ 서로 공생 관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④ 환경에서 생존에 가장 유리하기 때문이다.
- ⑤ 살아가는 환경이 서로 유사하기 때문이다.

22. 밑줄 친 두 낱말의 관계가 ㉠, ㉡와 가장 유사한 것은? (3점)

- ① 여러 거미들 중 일부 거미는 알에서 부화한 새끼들이 어미의 몸을 영양분으로 먹고 자란다.
- ② 개미는 진딧물로부터 필요한 당분을 섭취하는 대신, 무당벌레의 공격으로부터 진딧물을 보호해 준다.
- ③ 돼지는 비계가 두꺼워 뱀에게 물려도 어떤 해를 입지 않기에, 뱀을 보면 오히려 피하지 않고 잡아먹는다.
- ④ 닭은 독이 있는 지네를 무서워하지 않고 오히려 먹이로 삼는데, 닭이 죽으면 지네는 닭을 먹이삼아 때로 모여든다.
- ⑤ 빠꾸기는 지빠귀의 둥지에 몰래 알을 낳는데, 알에서 부화한 빠꾸기 새끼는 지빠귀의 알을 밀어내고 어미 지빠귀로부터 먹이를 받아먹고 자란다.

[23~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옥 ㄱ튼 이스레 단풍나무 수푸리 시들어 떨어지니
 무산과 무협에 서린 기운이 쓸쓸흐도다.
 ㄱ툼 스이엿 물겨른 하늘해 겹흐야 솟고,
 변방의 브롬과 구르믈 짜해 니어 아득흐도다.
 국화 두 번 피거늘 다룬 날 브터 우노라.
 외로운 비를 흐 번 미야 이쇼니 고향에 가고쥬 흐논 므으미로다.
 치운 젓 옷을 곳곳에서 가위와 자로 지오물 재촉하니
 백제성 노퍽 곳 저녁나절 다듬이 소리 분주히 들리는구나. - 두보, <추흥>

(나) 수만 호 빛이래야 할 내 고향이언만
 노랑나비도 오잖는 무덤 위에 이끼만 푸르리라

 슬픔도 자랑도 집어삼키는 검은 꿈
 파이프엔 조용히 타오르는 꽃불도 향기론데

연기는 돛대처럼 내려 항구에 들고
옛날의 들창마다 눈동자엔 짜운 소금이 저려

바람 불고 눈보래 치잖으면 못 살리라
매운 술을 마셔 돌아가는 그림자 발자취 소리

숨막힐 마음 속에 어데 강물이 흐르뇨
달은 강을 따르고 나는 차디찬 강 맘에 드리라

수만 호 빛이래야 할 내 고향이언만
노랑나비도 오잖는 무덤 위에 이끼만 푸르리라 - 이육사, <자야곡>

(다) 샅샅개 짓는 소리 / 눈보라에 얼어붙은 선달 그믐 밤이
얇긔은 손을 하도 곱게 흔들길래 / 술을 마시어 불타는 ㉠ 소원이 이 부두로 왔다.

걸어온 길가에 쫄레 한 송이 없었대도 / 나의 아롱범은
자옥 자옥 뉘우칠 줄 모른다. / 어깨에 쌓여도 하얀 ㉡ 눈이 무겁지 앓고나.

철없는 누이 고수머릴랑 어루만지며
우라지오의 이야길 캐고 싶던 밤이면 / 울 어머니

서투른 마우재 말도 들려 주셨지. / 줄음줄음 귀 밝히는 누이 잠들 때꺼정
등불이 깜빡 저절로 눈감을 때꺼정

다시 내게로 헤어드는 / 어머니의 입김이 무지개처럼 어질다.

나는 그 모두를 살뜰히 담았으니 / 어린 기억의 새야 귀성스럽다.
기다리지 말고 마음의 은줄에 작은 날개를 털라.

드나드는 배 하나 없는 지금 / 부두에 호젓 선 나는 ㉢ 멧비둘기 아니건만
날고 싶어 날고 싶어 / 머리에 어슴푸레 그리어진 그 곳
우라지오의 바다는 ㉣ 얼음이 두껍다.

등대와 나와 / 서로 속삭일 수 없는 생각에 잠기고
밤은 알팍한 꿈을 끝없이 찌인다.

가도오도 못할 ㉤ 우라지오. - 이용악, <우라지오 가까운 항구에서>

23. (가)~(다)의 시적 화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가)와 (나)는 현실적 장애를 극복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 ② (나)와 (다)에는 자신이 처한 현실에 대한 냉소적 인식이 드러나 있다.
- ③ (가)와 (다)에는 지향하는 공간에 도달할 수 없는 심정이 나타나 있다.
- ④ (가)~(다) 모두 현실을 운명으로 간주하며 체념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 ⑤ (가)~(다) 모두 자신이 처한 현실과 이상이 공존하는 세계를 지향하고 있다.

24. (가)와 <보기>의 공통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점)

— <보 기> —

맥의 나라 이 땅에 첫눈이 날리니,
 춘성에 나뭇잎이 들성해지네.
 가을 깊어 마을에 술이 있는데,
 객창에 오랫동안 고기 맛을 못보겠네.
 산이 멀어 하늘은 들에 드리웠고,
 강물 아득해 대지는 허공에 붙었네.
 외로운 기러기 지는 해 밖으로 날아가니,
 나그네 발걸음 가는 길 머뭇거리네. - 김시습, <도중>

- ① 객지에서 유랑하는 시적 화자의 신세가 나타나 있다.
- ② 지향하는 대상에 대한 그리운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③ 계절적 배경을 통하여 쓸쓸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④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
- ⑤ 시적 화자의 처지를 객관적 상관물을 통해 표현하고 있다.

25. (나)의 시적 의미를 파악하기 위하여 <보기>와 같이 메모하며 시구를 제시할 때, ㉠~㉥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1. 상황

- 시적 화자가 있는 시·공간 → 어두운 밤, 어느 항구

2. 정서

- 고향 상식으로 인한 안타까움
 → 노랑나비도 오잖는 무덤 위에 이끼만 푸르리라 ㉠
- 유랑으로 인한 객수(客愁)
 → 달은 강을 따르고 나는 차디찬 강 옆에 드리라 ㉡

3. 태도

- 현실적 상황에 대한 역설적 인식
 → 바람 불고 눈보래 치잡으면 못 살리라 ㉢
- 고향 상식으로 인한 절망감 인식
 → 매운 술을 마셔 돌아가는 그림자 발자취 소리 ㉣

4. 이미지

- 시상의 흐름상 긴밀하게 연결되는 이미지
 → 수막 호 빛, 노랑나비, 연기, 그림자, 무덤 ㉤

- ① ㉠ ② ㉡ ③ ㉢ ④ ㉣ ⑤ ㉤

26. (다)의 창작 과정을 추리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2점)

- ① 유년 시절에 대한 회상을 시상 전개 과정에 삽입하면 어떨까?
- ② 절망적 상황 제시로 시적 화자의 단절된 처지를 드러내면 좋겠어.
- ③ 힘겨운 현실에 맞서 온 시적 화자의 모습은 비유적으로 표현해야지.
- ④ 동일한 통사 구조의 반복으로 암울한 심정을 강조하는 것도 좋을 거야.
- ⑤ 시간적 배경을 의인화하여 표현함으로써 시적 화자의 심리를 드러내야겠어.

27. (다)의 ㉠~㉤ 중, <보기>의 **산**과 함축적 의미가 유사한 것은? (2점)

— <보 기> —

물로 사흘 배 사흘 / 먼 삼천 리 / 더더구나 걸어 넘는 먼 삼천 리
삭주구성은 산(山)을 넘은 육천 리요

물 맞아 함빡이 젖은 제비도 / 가다가 비에 걸려 오노랍니다.
저녁에는 높은 산 / 밤에 높은 **산**

삭주 구성은 산 넘어 / 먼 육천 리
가끔가끔 꿈에는 사오천 리 / 가다오다 돌아오는 길이겠지요

서로 떠난 몸이길래 몸이 그리워 / 님을 둔 곳이길래 곳이 그리워
못 보았소 새들도 집이 그리워 / 남북으로 오며가며 아니합디까

들 끝에 날아가는 나는 구름은 / 반쯤은 어디 바로 가 있을텐고
삭주 구성은 산 넘어 / 먼 육천 리 - 김소월, <삭주 구성>

① ㉠

② ㉡

③ ㉢

④ ㉣

⑤ ㉤

[28~3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오늘날 인간의 욕망은 더 이상 정지해 있으려 하지 않는다. 세계도 욕망의 자유로운 이동 공간으로 바뀌기 시작한 지 오래다. 이미 욕망의 새로운 이동화 시대가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공중 전화보다 휴대 전화를 좋아하듯 우리는 정지하기보다 이동하고 싶어한다. 우리의 생활은 벌써 그것을 더욱 즐기고 선호한다. ㉠ 우리는 정주보다 유목에 길들여가고 있다. 어느새 우리는 욕망에 따라 이동하는 신유목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다.

정주 문화를 상징해 온 인문학은 신유목 시대와 갈등하고 있다. 그것은 새로운 문화 양식과의 갈등이다. 문화 기반이 전면적으로 교체되는 상황에서 인문학은 암흑 시대를 경험한 중세 이래 오랜만에 갈피를 잡지 못해 방황하고 있다. 더구나 인간의 욕망이 경제 논리에 따라 이동하는 신유목 시대에, 경제 속도에 뒤지고 경제 논리에 어두운 인문학은 새로운 시스템에서 배제를 강요받는다. 무엇이 인문학을 이토록 벼랑 끝에 서게 하는 것일까?

먼저 시대 변화에 따른 가치의 전도가 가장 근본적인 이유일 것이다. 정주에서 신유목으로의 문화 양식의 전환과 욕망의 고정화에서 이동화으로의 생활 양식의 전환은 인류가 이제까지 경험해 온 어떤 변화와도 견줄 수 없을 만큼 혁신적인 것이다. 특히 힘의 문화에서 속도 문화으로의 전환은 모든 기존의 문화 틀과 가치를 쓸모없게 하거나 전도시키기에 충분하다. 정신 문화의 근본보다는 물질 문명의 첨단을 더욱 쓸모 있는 것으로 간주하기에 이른 것이다. 신유목 문화는 인간 정신의 변할 수 없는 내면적 가치의 향유와 진작보다는 물질 문명의 활용 수단과 전달 방법의 개발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한다.

인문학의 입지가 어느 때보다 좁아진 이유 중 하나는 대학이 앞장서서 그것을 외면하기 시작한 데도 있다. 대학을 가리켜 상아탑이라고 부르는 것은 현실에 영합하지 않는 대학 본래적인 사명과 역할 때문이었다. 그러나 대학들은 신유목 시대의 경제 원리에만 경도되어 대학 교육의 새틀짜기에 매달려 왔다. 교양학으로서 인문학의 축소와 배제에 초점을 맞춘 교양 교육의 개편이 그것이고, 국문학과 영문학의 짝짓기를 강요하여 학제의 기형아를 탄생시킨 이른바 학부제로의 개편이 그러하다. 이것은 시대의 변화와 같이 달라진 외부 환경에서 비롯된 인문학의 위상 변화보다 더욱 심각한 원인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인문학자 자신들에게서 찾지 않을 수 없다. 지나치게 말하면 오늘의 위기는 인문학자의 위기라고 해야 옳을지도 모른다. 이것은 정주민이기를 고수하며 인문학의 내용과 방법, 그 지위와 가치를 초시간적·초공간적이기를 고집하는 데서 비롯된 위기이다. 이것은 신유목 시대가 변신하지 않으려는 정주적 인문학자의 권위주의적 오만을 어느 때보다 용인하지 않으려는 데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다. 또한 인문학이 유물

- ① 단독 주택에 살기보다 아파트에 살기를 선호한다.
- ② 편지를 쓰기보다는 이메일로 소식을 주고 받는다.
- ③ 탁자에 앉아 논의하기보다 화상(畵像) 회의를 한다.
- ④ 밥보다 컵라면 같은 패스트푸드로 식사를 대신한다.
- ⑤ 서점에 직접 가기보다는 전자 서점에 책을 주문한다.

32. ㉠에 나타난 의미를 표현하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②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③ 처음이 좋으면 반은 성공한 것이다. ④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
 ⑤ 바다도 물 한 방울로부터 시작된다.

[33~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때 춘풍이 비장 덕에 돈 받아 실어 놓고 갓, 망건, 의복 차려 입고 경성으로 올라와서 제 집을 찾아간다. 춘풍의 처 문 밖에 썩 나서서 춘풍의 소매 잡고 깜짝 놀라 하는 말이,

“어이 그리 더디던고. 장사에 재미 보고 평안히 오시니까?”

춘풍이 반기면서,

“그새 잘 있었는가.”

㉠ 춘풍이 이십 바리 돈을 여기저기 벌이고 장사에서 남긴 듯이 의기양양하니, 춘풍 아내 거동 보소. 주찬을 소담히 차려 놓고,

“자시오.”

하니 ㉡ 저 잡놈 거동 보소. 없던 교태* 지어 내어 제 아내 꾸짖으되,

“안주도 좋지 않고 술 맛도 무미하다. 평양서는 좋은 안주로 매일 취하여 입맛이 높았으니, 평양으로 다시 가고 싶다. 아무래도 못 있겠다.”

젓가락을 그릇에 던져 박고 고기도 씹어 뱉어 버리며 하는 말이,

“평양 일색 추월이와 좋은 안주 호강으로 지냈더니 집에 오니 온갖 것이 다 어설프다. 호조 돈이나 갇고 다시 평양으로 내려가서, 작은집과 한가지로 음식을 먹으리라.”

㉢ 그 거동은 차마 못 볼러라. 춘풍 아내 거동 보소. 춘풍을 속이려고 상을 물려 놓고 황혼 때에 밖에 나가 비장 차림 다시 하고, 대문 안에 들어서서 기침하고,

“춘풍아, 왔느냐?”

춘풍이 자세히 보니 평양서 돈 찾아 주었던 비장이라. 춘풍이 깜짝 놀라 버선발로 뛰어 내달아 엎드려 말하기를,

“소인이 오늘 왔으나 날이 저물어 내일 댁에 문안코자 하였는데, 나으리 먼저 행차하옵시니 황공하여이다.”

“내 마침 이리 지나가다가 너 왔단 말 듣고 네 집에 잠깐 들렀노라.”

방 안에 들어가니, 춘풍이 아무리 제 안방인들 어찌 들어올까? 문 밖에 섰노라니,

“춘풍아, 들어와서 게 앉거라.”

“나으리 좌정하신 테를 감히 들어가오리까?”

“잔말 말고 들어오라.”

춘풍이 마지못하여 들어오니, 비장이 말하되,

“그때 추월에게 돈은 받았느냐?”

“나으리 덕택에 즉시 받았나이다. 못 받을 돈 오천 냥을 하루아침에 다 받았사오니, 그 은혜가 태산 같사이다.”

“그때 맞던 매가 아프더냐?”

“소인에게 그런 매는 상(賞)이로소이다. 어찌 아프다 하리이까?”

“네 집에 술이 있느냐?”

춘풍이 일어서서 주안을 들이거늘 비장이 꾸짖어 말하되,

“네 계집은 어디 가고 네가 일을 하느냐? 네 계집 불러 술 준비 못 시킬까?”

춘풍이 황급하여 아무리 찾은들 있을쏘냐. 들떠나며 찾아도 무가내*라 제 손수 거행하니 한두 잔 먹은 후 비장이 하는 말이,

“네 평양에서 추월의 집 사환 할 제, 모습도 참혹하고 걸인 중 상거지라. 추월의 하인 되어 봉두난발 현 누더기 어떻더냐?”

춘풍이 부끄러워 제 계집이 문 밖에서 엿듣는가 민망하건마는, 비장이 하는 말을 제가 어찌 막을손가.

㉔ 좌불안석(坐不安席) 하는 꼴은 혼자 보기 아깝더라. 비장 말하되,

“남산 밑 박 승지 댁에 갔다가 술이 취하여 네 집에 왔더니 시장도 하거니와, 갈증도 나는구나. 어서 가서 갈분*이나 한 그릇 해 오너라.”

춘풍이 황공하여 밖으로 내달아서 아무리 제 처를 찾은들 어디 간 줄 알리요. 주저주저하더라. 비장이 꾸짖어 말하기를,

“네 계집을 어디 숨기고 나를 아니 뵈는고?”

차월피월*하니,

“너는 벌써 잊었느냐? ㉕ 평양 일을 생각하여 보라. 네가 집에 왔다고 그리 체중*한 체 하느냐?”

㉖ 춘풍이 갈분을 가지고 부엌에 내려가 죽 쑤는 꼴은 차마 볼 수 없더라. 한참 꿈적여서 쑤어 들이거늘, 비장이 조금 먹는 체하고 춘풍을 주며,

“먹으라. 추월의 집에서 깨어진 현 사발에 누른 밥 된장덩이를 찌그러진 숟가락도 없이 먹던 생각하고 먹으라.”

㉗ 춘풍이 받아 먹으며 제 아내가 밖에서 다 듣는가, 속으로 민망히 여기더라.

비장이 말하되,

“밤이 깊었으니 네 집에서 자고 가리라.”

하고 의복 벗고 갓, 망건을 벗으니, 춘풍이 감히 가란 말을 못 하고 여러 해 만에 그리던 아내 만나서 잘 잘 까 하였는데 비장이 잔다 하니 속으로 민망히 여기더라. 갓, 망건 벗어 놓고 옷옷을 훑훑 벗은 후 일어서니 완전한 제 계집이라. 춘풍이 깜짝 놀라 다시 자세히 보니 분명한 제 계집이라. 춘풍이 어이없어 말없이 앉아 있으니 춘풍의 처 달려들며,

“여보소. 아직도 나를 모르시오?”

춘풍이 그제야 깨닫고 깜짝 놀라며, 두 손을 마주 잡고,

“이것이 웬일인가? 평양 비장이 지금 내 아내 될 줄 어이 알리. 이것이 꿈인가 생신가?”

하며 ㉘ 원앙금침에 옛정을 다시 이루니 은근한 정이 비할 데 없더라.

* 교태(驕態): 교만한 태도 혹은 마음.

* 무가내(無可奈): 어찌 할 수 없음.

* 갈분(葛粉): 칩뿌리를 짓이겨 앙금을 물에 가라앉히어 말린 가루.

* 차월피월(此月彼月): 이달, 저달로 미루는 것이나 또는 그러한 태도.

* 체중(體重): 지위가 높고 중함.

33. 위 글을 읽은 독자들의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 ① 이춘풍과 아내는 상호 대립하며 불화를 일으키고 있다.
- ② 추월은 이춘풍의 권세에 의지하여 신분 상승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 ③ 이춘풍은 허세와 위선에 가득 찬 양반들의 전형적인 행태를 보여준다.
- ④ 아내는 남녀의 지위를 역전시킴으로써 여성의 우월성을 드러내고 있다.
- ⑤ 화목하고 안락한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이춘풍의 소망이 나타나고 있다.

34. ㉔~㉘ 중, 인물에 대한 서술자의 태도가 다른 것은? (3점)

- ① ㉔ ② ㉕ ③ ㉖ ④ ㉗ ⑤ ㉘

35. 화자가 의도한 ㉠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2점)

- ① 비장에게 잡혀가 매를 맞은 일 ② 호조에서 빌린 돈을 탕진한 일
 ③ 추월이의 사환이 되어 고생하던 일 ④ 아내가 비장이 되어 남편을 찾아온 일
 ⑤ 비장의 도움으로 추월에게서 돈을 되찾은 일

36. ㉠과 ㉡의 상황에 어울리는 속담으로 알맞게 짝지어진 것은? (3점)

	㉠	㉡
①	눈 가리고 아웅 한다.	죽제비도 낮짝이 있다.
②	거적문에 돌쩌귀 단다.	처갓집 말뚝에 절한다.
③	개구리 올챙이 적 생각 못한다.	고양이 쥐 사정 보듯 한다.
④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	마파람에 게 눈 감추듯 한다.
⑤	개똥밭에도 별들 날이 있다.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

[37~4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오늘날 사용되는 지식인이라는 집단적 계층 형성에 직접적이고 지배적인 역할을 한 것은 프랑스다. 지식인이라는 용어는 ‘드레퓔스 사건’으로 불리는 인종 차별적 진실 은폐를 둘러싼 공방에서 출현한다. 이 사건은 1894년 프랑스에서 발생한 간첩 조작 사건이다. 유대계의 드레퓔스 대위가 독일을 위해 간첩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군사재판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음으로써 촉발된 이 사건은 드레퓔스의 무죄를 주장하는 증거를 제시하고 직접 보고한 지휘관이 좌천되면서 사회적으로 부각되었다. 당시 재심 요구서와 함께 졸라의 유명한 <나는 고발한다>라는 공개 서한이 발표된다. 그러자 사회 지도자들—문학자, 예술가, 교수, 변호사—은 자신들의 활동 영역과는 상관없이 스스로를 지식인이라 칭하면서 드레퓔스의 재심과 석방을 위한 성명에 참여한다. 이것이 프랑스에서 ‘지식인 선언’으로 나타난다. 당시 지식인은 드레퓔스의 무죄와 석방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가리켰고, 이 사건 이후 자신들의 전문 활동 영역을 넘어 보편적인 가치, 즉 실체적 진실이나 인간으로서의 권리와 관련된 사회 운동이나 활동에 적극 참여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사람들을 일컫는 용어로 정착되었다.

지식인이라는 용어가 정착되던 당시 분통을 터뜨리는 사람과 분별력 있는 사람들이 ‘드레퓔스 파’라는 이름 아래 집결하였다. 옹호자들은 ‘정의를 위한 연대’를 결성하려 했지만, ‘진실을 위한 연대’라는 좀 더 겸손한 이름을 채택했다. 왜냐하면 무엇이 정의인가 하는 논란 때문에 정의로운 것에 대해서는 서로가 망설일 수 있지만, 누구나 사실을 확인하면 수긍할 수밖에 없는 진실한 것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으리란 논리 때문이었다. 이렇듯 지식인은 추상적이고 이념적인 정의로움보다는 참과 거짓에 우선적인 관심을 가지는 집단이며, 거짓에 분노하고 저항하는 집단이었고, 그들의 역할은 사실을 사실로서 드러내고 참과 거짓을 판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었다. 이러한 사실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정의로움으로 이어지는 것은 자명했다. 사실과 다르게 관념적으로 무엇을 만들어 차별적으로 재단하는 정의의 부당함을 준엄하게 고발하고, 사실에 입각한 참을 가지고서 적진을 돌파하는 지식인, 이것이 ㉠ 드레퓔스 파 지식인의 모습이다.

그런데 오늘날 지식인은 사실에 대한 왜곡에 눈감고 분노를 억제하고 준엄한 고발도 하지 못한다. 그들은 사실에 입각해 진실을 밝히려는 실질적인 노력보다 자신의 활동이 만드는 사회적 효과에 매달리며, 사실 자체보다는 자신이 그러한 사실에 접근했을 때 생길 수 있는 개인적 가치나 효용을 ㉡ 따진다. 무엇이 어떻게 시작해 어떻게 진행되는가 하는 물음보다 늘 내가 무엇을 하면 이 상황에서 가치 있게 될지를 셈한다. 하지만 최초 지식인의 출현이 보여주듯이 교양인 또는 교육받은 자라면 사회적 지성의 기능을 자임하고 시대의 고통을 덜고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관심을 포기하면 안 된다. 사상과 이론가들이 그 사상과 이론에 담길 사회성과 역사성을 놓친다면 이미 지식인일 수 없다. 따라서 오늘날 지식인의 활동에서 지극히 개인적인 신념과 계산에 따른 개인적 활동만이 강조되는 것은 병폐가 아닐 수 없다.

37.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2점)

- ① 드레퓔스 사건은 프랑스에서 발생한 간첩 조작 사건이었으나 인종 차별 문제가 핵심이었다.
- ② 드레퓔스 옹호자들은 ‘정의의 위한 연대’를 결성하여 사회의 잘못을 바로잡으려고 노력하였다.
- ③ 오늘날 지식인은 왜곡된 사실의 진실을 밝히고 시대의 고통을 덜어주는 행동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 ④ 지식인 선언은 보편적 가치에 대해 의사 표시를 하고 잘못을 고치려는 사람들의 적극적인 행동이었다.
- ⑤ 드레퓔스 대위의 무죄를 주장한 지휘관이 좌천되자 각계 사회 지도자들은 그의 재심과 석방을 요청했다.

38. 위 글에서 말하는 ‘참된 지식인’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2점)

- ① 지금은 뭐니 뭐니 해도 세계화 시대잖아. 영어 실력이 최고지 뭐! 컴퓨터 실력도 갖춰야 하고. 경쟁 사회에서 인정받기 위해 난 이 분야의 최고 전문가가 되겠어.
- ② 나는 역사박물관에 갈 거야. 옛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궁금하거든. 난 과거 역사를 통해 현재를 배우고 사회를 보다 바람직한 모습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할 거야.
- ③ 순수학문이 잘 갖춰지지 않으면 실용학문은 다양하게 발전하기 어려워. 그래서 나는 앞으로 순수학문을 공부해 실용학문의 폭을 넓히고 새로운 이론 개발에 힘쓸 거야.
- ④ 아인슈타인 박사가 아이들에게 보낸 편지 모음집을 읽었어. 세계적인 학자가 아이들의 물음에 일일이 답해주셨다는 사실에 난 감동했어. 나도 커서 아인슈타인 같은 물리학자가 될 거야.
- ⑤ 아는 것이 힘이라고 했어. 난 이번 방학 동안 책 30권을 읽을까 해. 책은 국어 선생님이 추천해 주셨는데 어머니와 함께 사기로 했어. 일단 책을 읽으면서 내가 사는 세상의 힘을 알아낼 거야.

39. ㉠의 내용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것은? (3점)

- ① 맑은 햇빛으로 반짝반짝 물들으며 / 가볍게 가을을 날고 있는 / 나뭇잎, / 그렇게 주고받는 / 우리들의 반짝이는 미소로도 / 이 커다란 세계를 / 넉넉히 떠받쳐 나갈 수 있다는 것을 / 믿게 해 주십시오.
- ②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 한점 부끄럼이 없기를, /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 나는 괴로워했다. /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 걸어가야겠다.
- ③ 그 날이 오면 그 날이 오면은 /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 한강물이 용솟음칠 그 날이 / 이 목숨이 끊기기 전에 와 주기만 하량이면 / 나는 밤 하늘에 나는 까마귀와 같이 / 종로의 인경을 머리 로 들이받아 울리오리다.
- ④ 나 두 야 간다. / 나의 이 젊은 나이를 / 눈물로야 보낼 거냐 / 나 두 야 가련다. // 아늑한 이 항구인들 손쉽게야 버릴 거냐 / 안개같이 물어린 눈에도 비치나니 / 골짜기마다 밭에 익은 뿔부리 모양 / 주름살도 눈에 익은 아! 사랑하는 사람들
- ⑤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 누가 구름 한 송이 없이 맑은 /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 네가 본 건, 먹구름 / 그걸 하늘로 알고 / 일생을 살아갔다. // 네가 본 건, 지붕 덮은 / 쇠 항아리, 그걸 하늘로 알고 / 일생을 살아갔다. // 닭아라, 사람들아 / 네 마음 속 구름 / 찢어라, 사람들아 / 네 머리 덮은 쇠 항아리

40. ㉡과 문맥적 의미가 가장 유사한 것은? (3점)

- ① 관계 당국에 사고의 원인을 따지다.
- ② 우리 회사는 학력 같은 것은 안 따진다.
- ③ 득실을 따져 보고 그 일을 시작하도록 하자.
- ④ 어제 일을 따지고 보면 나도 잘못된 점이 많다.
- ⑤ 회사의 매출액으로 따지면 20위 정도는 될 것이다.